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르쳐요

장성 원덕사,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불교학교 12년째



장성 원덕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불교학교'를 개설했다. 20여명의 어린이들이 법당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다.

“얼굴에 보조개가 있으면 예쁘죠. 그래서 ‘예쁘다’는 말은 오른손 검지를 얼굴 볼에 대고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장성 북이원 원덕사(주지 지암) 법당에서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수화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새해들어 들쭉날, 겨울방학을 맞아 호남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불교학교’가 개설됐기 때문이다. 원덕사 불교학교는 몇가지 특별한이 있다. 불교학교가 21일간 진행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스님과 함께 먹고 자며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 학교에 참가한 어린이 대부분이 결손가정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름, 겨울 방학

때마다 열리는 원덕사 불교학교는 국내에서 하나뿐인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불교학교이다. 원덕사 불교학교는 2000년부터 시작했다. 오직 어린이포교만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발원한 주지 지암 스님과 특수교육전문가 애안 선생님의 원력이 만나 12회째 진행하고 있다.

방학 때마다 21일간 스님과 함께 공동생활 장애인 위한 수화 필수

이곳에서는 6시 아침예불과 함께 시끌벅적한 하루가 열린다.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들이 모여 있기에 게임과 만들기 등의 놀이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다. 스님의 지도로 ‘부모은중경’으로 배우는 한문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영어, 일어, 수학과 방학숙제 지도도 빠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바라고 있어 눈을 자주 마주치고, 많이 칭찬하고,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거든요” 대학에서 특수교육과 교수를 역임한 애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항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준다.

주지 지암 스님은 말문이 늦게 트였다. 말을 하지 못한 탓에 어려서부터 주위의 놀림에 시달려야했다. 그때 장차 커서 소외된 어린이들과 함께 살 것을 발원했다.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는 수화교육이 필수이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몸으로 하는 언어를 하나 더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원덕사는 일년내내 흔하디 흔한 법회가 없다. 일요법회와 가정방문법회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을 도와줄 뿐이다. 신도들의 정성과 사일초파일, 칠석 때 모여진 보시금은 전액 불교학교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원덕사를 나서면서 불교학교가 21일간 진행되는 이유를 물었다.

“일주일엔 잘못된 습을 버리고, 일주일엔 새로운 습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일주일엔 새로운 습을 다듬는 기간입니다” (061)394-4837

글 · 사진/장성=이준엽 기자

‘전두환 종’ 철거

광주 무각사, 새 범종불사 회향 및 타종식 봉행

‘전두환 종’으로 치부되어 온 광주 무각사 범종이 철거됐다.

무각사주지 광민은 지난 12월 22일 범종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범종을 타종했다.

이날 광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종에 금이 가고, 전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아 새로운 범종불사를 추진했다”며 “3년 10개월 만에 범종불사를 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타종한 범종은 무게 1100kg로 주철장 원광식 씨(중요무형문화재 112호)가 제작했다.

한편 무각사는 5·18자유공원 내에 자리해 있으며, 이번에 철거된 범종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5.18 관련단체로부터 철거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광민 스님은 “범종도 무각사와 광주역사의 일부이다”며 “철거된 범종을 없애지 않고 경내에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전두환 대통령 각하’라는 명문이 새겨진 무각사 범종.

구산 스님 23주기 추모법회

조계종립 송광사주지 영조는 1월 1일 대웅전에서 ‘구산대종사 제2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계종립 방장 보성 스님, 조계종 대종사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현호 스님 등 문도와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혜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구산 큰 스님은 근세 한국불교의 대 선지식으로 세계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떨치셨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계으르지 말고 정진하자”고 말했다.

추모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송광사 법전으로 자리를 옮겨 탑돌이로 구산스님을 추모했다. 이준엽 기자

가요 등으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또한 2005년 5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봉림은 이날 창원시 중, 고등학교 20여명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봉림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법회를 열어 청소년수련센터 건립 원만 성취를 위한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덕명 스님 부도탑 제막식



부산 가장 안락사(주지 법안)는 2006년 12월 27일 남곡당 덕명 스님의 행차 열반 3주기 추모대제와 부도탑 및 행장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범어사 전계사 흥교 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지한 가운데 봉행됐다.

덕명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된 안락사에 제막된 행장비의 비문은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이 적었다. 범어사 주지를 지낸 덕명 스님은 부산불교연합회 설립에 참여하는 등 부산불교의 기틀을 다지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광주 불교단체들 희망 다짐

부산과 광주 등 지역불교계에서도 2007년을 희망의 해로 가꾸기 위한 정진에 돌입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4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례법회를 봉행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올해 부산불교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감지된다. 승가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연합회가 지난해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보다 조직적인 전법을 발원하고 있는데다, 재가를 대표하는 부산불교신도회 역시 40년 숙원이었던 신도회관 개관을 앞두고 부산 재가불교의 위상 재정립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창립 26년 만인 2006년 10월 20일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다. 1800여 사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2007년 한해를 실질적인 불교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날 열린 신년례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중·부산불교신도회회장 대성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날 광주지역에서도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각) 주관으로 신년례법회가 열렸다. 무등산관광호텔에서 ‘광주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은 “불교를 실천할 때 불자뿐 아니라 광주시민, 나아가 국민이 모두 잘살게 된다”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홍사 조실 천은, 미타종 종정 혜우, 백양사 주지 성오, 대홍사 주지 몽산 스님, 이상진 광주전남신도회장,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엽·천미희 기자



▽광주시암연합회 신년례회 모습.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신도회 신년례회 모습.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사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컴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휴리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 6주 1월 4일 - 1월 10일 [340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1월 4일[목]	울릉도	-	포항 보은사 220km
1월 5일[금]	보은사	-	구룡포 20km
1월 6일[토]	구룡포	-	감 포 18km
1월 7일[일]	감 포	-	나아리 19km
1월 8일[월]	나아리	-	주 전 19km
1월 9일[화]	주 전	-	울산시 18km
1월 10일[수]	울산시	-	간절곶 26km

제 7주 1월 11일 - 1월 17일 [14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리
1월 11일[목]	간절곶	-	일 광 21km
1월 12일[금]	일 광	-	광안 행원암 21km
1월 13일[토]	행원암	동선회	관음사 22km
1월 14일[일]	관음사	구 포	동강해 21km
1월 15일[월]	동강해	태광실업(주)	정산컨트리클럽 20km
1월 16일[화]	정 산	-	창원시 18km
1월 17일[수]	창원시	-	내사읍고개 19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씩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